

홈 > 뉴스 > 문화

## 안양, 문화예술재단 박형식 초대 이사장 임명

2009년 03월 12일 (목) 16:43:04

엄명수 기자 [✉ ems1105@kihoilbo.co.kr](mailto:ems1105@kihoilbo.co.kr)

【안양】 오는 5월 출범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에 박형식(56)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이 임명됐다.

신임 박 이사는 한양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, 단국대 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 학위와 교육사회학·평생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했다. 또 서울시립합창단 기획실에서 22년 동안 근무하고 정동극장 상임이사 겸 극장장과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을 역임했다. 한편, 오는 5월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작지원 활동 확대와 더불어 안양을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가꾸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.



이로써 신임 박형식 이사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초대이사로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재단을 이끌게 된다.

© 기호일보(<http://www.kihoilbo.co.kr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